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은영¹ · 정춘화²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Grit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un Young, Chin¹ · Chun Hwa, Jung²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1호 2024년 3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1, March. 2024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은영¹ · 정춘화²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Grit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un Young, Chin¹ · Chun Hwa, Jung²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grit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ethods :** A total of 272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descriptive study. Data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between May 25, 2023 and September 10, 2023, SPSS 21.0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us, college life adjustment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grit. The factor most significantly affecting college life adjustment was major satisfaction($\beta = 0.43, \rho < .001$), followed by grit($\beta = 0.32, \rho < .001$), and adjustment to the personality type($\beta = -0.20, \rho < .001$) and department($\beta = -0.19, \rho < .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70%.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ystematic curriculum and activate student guidance programs that can develop and operate extracurricular programs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from admission to graduation.

Key words : Empathy, Satisfaction, Grit, Adjustment, Nursing stud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단단계에 속하며,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 설정에 대한 준비와 고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1]. 최근에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과 본인 적성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목적으로 간호학과를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대학생활에 불만족하거나 학과에 부적응하는 간호학생이 증가하고 있다[2]. 입학 당시부터 전공이 정해져 입학하는 간호대학생은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입학 시기에 깊이 있게 전공 탐색 및 진로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국가고시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휴학이나 전과, 자퇴 등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진다[2-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외부적 환경변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5].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처럼 지각하여 이를 지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으로, 자신 일처럼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정서적, 인지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6]. 공감이 없다면 본인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7,8]. 또한,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으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 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며 다양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8,9], 미래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간호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4].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한 평가 정도를 의미

한다[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전공만족도가 낮으면 학업에 어려움으로 낮은 성적, 대학생활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휴학 및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끈기와 장기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릇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2].

그릇은 실패와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유지하는 고집있는 성격특성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일관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된다[13]. 그릇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와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도전하는 힘의 원천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힘이다[14].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일생에 대한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자신이 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를 심어주고 공감능력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그릇을 효율적으로 향상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1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1,11], 의사소통과[5], 진로정체감[3], 자기효능감[12], 전공만족[11,14,16], 그릇[11,15], 문제해결능력[4], 스트레스[17]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대학생활 동안 동료, 선배 등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감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선행연구[4]가 이루어졌다. 그릇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일관된 끈기와 열정으로[27] Jung과 Jeong[11]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만족도와 그릇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Duckworth et al.[13]은 그릇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강조되는 점이 현재에 초점을 맞춘 성실성과 다르며 진전이 없는 정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그릇은 실패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 동기로 그릇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27].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전공만족도, 그릿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생활적응에 공감능력과 전공만족도, 그릿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하여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효과크기(effect size)는 Chin과 Jung[18] 연구를 근거로 .15, 예측인자 13개의 조건에서 산출된 표본수는 189명이었으나 탈락률 30%을 고려하여 280명에게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 272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4]이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15]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ang 등[1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10]가 개발한 도구를 Lee[1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3)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등[13]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Lee[20]가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괄성 6문항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노력의 꾸준함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Park[2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h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자에게는 연구 시작 전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필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8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28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7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W보건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 연구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ABN01-202****-HR-****)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연구보조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내용과 연구목적, 연구 자료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 등과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록하였고 설문지를 읽고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이 자기기입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한 후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밀봉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특성과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및 각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자가 221명(81.3%)으로 많았고, 평균 나이는 23.81 ± 7.21 세였다. 종교는 '없음'이 177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79명(29.0%), '2학년' 61명(22.4%), '3학년' 71명(26.1%), '4학년' 61명

Table 1.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72)

Characteristics	n(%)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Grit		College life adjustment	
		M	± SD	t/F (ρ)	M	± SD	t/F (ρ)	M	± SD
Gender									
Female	221 (81.3)	3.52	± 0.48	0.71	4.11	± 0.50	1.87	3.10	± 0.56
Male	51 (18.8)	3.47	± 0.54	(.481)	3.96	± 0.58	(.062)	3.06	± 0.48
Age(year)		23.81	± 7.21						
≤21 ^a	141 (51.8)	3.53	± 0.48	0.63	4.13	± 0.51	3.48	3.09	± 0.50
22~25 ^b	68 (25.0)	3.52	± 0.54	(.535)	3.94	± 0.52	(.032)	2.94	± 0.63
≥26 ^c	63 (23.2)	3.45	± 0.45		4.11	± 0.51		3.26	± 0.50
Religion									
Yes	95 (34.9)	3.60	± 0.47	2.32	4.17	± 0.44	2.17	3.18	± 0.55
No	177 (65.1)	3.46	± 0.50	(.021)	4.03	± 0.55	(.030)	3.05	± 0.54
Grade									
First	79 (29.0)	3.63	± 0.45	2.57	4.14	± 0.62	0.94	3.23	± 0.55
Second	61 (22.4)	3.43	± 0.49	(.055)	4.04	± 0.43	(.424)	3.00	± 0.45
Third	71 (26.1)	3.45	± 0.52		4.02	± 0.51		3.05	± 0.54
Forth	61 (22.4)	3.50	± 0.50		4.11	± 0.45		3.08	± 0.62
Dwelling type									
Home ^a	142 (52.2)	3.53	± 0.48	0.29	4.06	± 0.51	0.76	3.12	± 0.52
Dormitory ^b	36 (13.2)	3.45	± 0.55	(.833)	4.15	± 0.53	(.517)	3.04	± 0.65
Living alone ^c	83 (30.5)	3.50	± 0.50		4.05	± 0.53		3.03	± 0.54
Others ^d	11 (4.0)	3.55	± 0.42		4.25	± 0.51		3.51	± 0.36
Economic status									
High	18 (6.6)	3.48	± 0.58	0.03	4.27	± 0.70	1.35	3.35	± 0.69
Middle	234 (86.0)	3.51	± 0.48	(.966)	4.07	± 0.49	(.262)	3.09	± 0.51
Low	20 (7.4)	3.50	± 0.57		4.04	± 0.63		2.92	± 0.71
Personality type									
Extroverted ^a	46 (16.9)	3.64	± 0.45	3.77	4.40	± 0.37	9.80	3.39	± 0.48
Introvert ^b	95 (34.9)	3.55	± 0.55	(.011)	3.98	± 0.54	(<.001)	3.01	± 0.54
Mixed ^c	122 (44.9)	3.46	± 0.45	d<a,b	4.06	± 0.49	d<b, c<a	3.06	± 0.54
Unknown ^d	9 (3.3)	3.11	± 0.34		3.66	± 0.52		3.03	± 0.59
Experience participation i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									
Yes	136 (50.0)	3.54	± 0.49	1.09	4.12	± 0.51	1.25	3.10	± 0.53
No	136 (50.0)	3.48	± 0.49	(.276)	4.04	± 0.52	(.211)	3.09	± 0.56
Adjustment to the department									
Good ^a	197 (72.4)	3.53	± 0.48	1.25	4.19	± 0.44	18.64	3.16	± 0.52
Moderate ^b	68 (25.0)	3.44	± 0.53	(.287)	3.81	± 0.59	(<.001)	2.92	± 0.59
Bad ^c	7 (2.6)	3.69	± 0.51		3.60	± 0.52	c<a	2.88	± 0.34

(22.4%)이었으며, 거주 형태는 ‘자택’이 142명(52.2%), 경제 상태는 ‘중’이 234명(86.0%)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성격유형은 ‘혼합형’ 122명(44.9%), ‘내향적’ 95명(34.9%), ‘외향적’ 46명(16.9%), ‘잘 모름’ 9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유’·‘무’는 각각 136명(50.0%)이었고, 학과 적응은 ‘잘함’ 197명(72.4%), ‘보통’ 68명(25.0%), ‘못함’ 7명(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에서 종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32$, $\rho=.021$)

성격유형에 따라 공감능력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7, \rho=.011$). 사후검정 결과, ‘외향적’·‘내향적’이 ‘모르겠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는 나이($F=3.48, \rho=.032$), 종교($t=2.17, \rho=.030$), 성격유형($F=9.80, \rho<.001$), 학과 적응($F=18.64, \rho<.001$)에서 전공만족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성격유형이 ‘내향적’·‘혼합적’이 ‘잘 모름’보다는 높고 ‘외향적’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적응을 못하는 경우보다 잘하는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그릿 차이에서 나이($F=5.76, \rho=.004$), 거주 형태($F=2.80, \rho=.040$), 성격유형($F=5.59, \rho=.001$), 학과 적응($F=5.58, \rho=.004$)에서 그릿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26세 이상’이 ‘22~25세’보다 높았으며, 거주 유형은 ‘기숙사’, ‘자취’보다 ‘기타’가 평균이 높았으며, 성격유형과 학과 적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나이($F=3.75, \rho=.025$), 종교($t=2.68, \rho=.008$), 학년($F=3.79, \rho=.011$), 성격유형($F=20.42, \rho<.001$),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참여 경험($t=2.07, \rho=.039$), 학과 적응($F=46.14, \rho<.001$)

에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종교가 있고 대학생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고 대학생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는 ‘21세 이하’가 ‘22~25세’보다,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혼합형’, ‘잘 모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적응은 ‘못함’보다는 ‘보통’이 ‘보통’보다는 ‘잘함’이 높았으나, ‘학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 ± 0.49 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8 ± 0.52 점이었으며,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10 ± 0.55 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62 ± 0.55 점이었다(Table 2).

4.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전공만족도($r=.24, \rho<.001$) 및 대학생활적응($r=.21, \rho<.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는 그릿($r=.39, \rho<.001$)과 대학생활적응($r=.70, \rho<.001$)

Table 2. Degree of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 = 272)

Variables	M \pm SD	Min	Max	Range
Empathy ability	3.51 \pm 0.49	2.11	4.92	1~5
Major satisfaction	4.08 \pm 0.52	2.28	5.00	1~5
Grit	3.10 \pm 0.55	1.25	4.33	1~5
College life adjustment	3.62 \pm 0.55	1.76	4.88	1~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 = 272)

Variables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Grit	College life adjustment
	r(ρ)			
Empathy ability	1			
Major satisfaction	.24(<.001)	1		
Grit	.06(.295)	.39(<.001)	1	
College life adjustment	.21(<.001)	.70(<.001)	.57(<.001)	1

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릿과 전공만족도($r=.57, \rho<.001$)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 특성 중 차이를 보인 나이, 종교, 학년, 성격유형,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 참여 경험, 학과 적응과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을 투입하였으며, 나이(21세 이하=0), 종교(유=0), 학년(1학년=0), 성격유형(외향적=0),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 참여 경험(예=0), 학과 적응(잘함=0)을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r=-.30\sim.55$ 로 .7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42~0.9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10~2.38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0.43, \rho<.001$), 그릿($\beta=0.32, \rho<.001$), ‘외향적’ 성격에 비해 ‘내향적’ 성격($\beta=-0.20, \rho<.001$), 학과 적응이 ‘잘함’에 비해 ‘보통’($\beta=-0.19, \rho<.001$), ‘잘함’에 비해 ‘못함’($\beta=-0.17, \rho<.001$)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8.0%이었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N = 272)

Variables	B	SE	β	t	ρ	VIF	R ²	Adj R ²	F(ρ)
(Constant)	0.76	0.24		3.11	.002				
Age(22~25) [†]	0.00	0.05	0.00	0.04	.969	1.28			
Age(≥ 26) [†]	-0.03	0.05	-0.02	-0.52	.602	1.32			
Religion(no) [†]	-0.02	0.04	-0.02	-0.58	.561	1.10			
Grade(second) [†]	-0.04	0.06	-0.03	-0.77	.444	1.50			
Grade(third) [†]	-0.08	0.05	-0.06	-1.46	.146	1.58			
Grade(forth) [†]	-0.01	0.06	0.00	-0.09	.925	1.55			
Personality type(introvert) [†]	-0.23	0.06	-0.20	-3.78	<.001	2.38			
Personality type(mixed) [†]	-0.06	0.06	-0.06	-1.07	.285	2.23	.70	.68	39.80
Personality type(unknown) [†]	-0.15	0.12	-0.05	-1.27	.204	1.32			(<.001)
Experience participation i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no) [†]	-0.05	0.04	-0.05	-1.23	.219	1.20			
Adjustment to the department(moderate) [†]	-0.25	0.05	-0.19	-5.08	<.001	1.23			
Adjustment to the department(bad) [†]	-0.59	0.13	-0.17	-4.66	<.001	1.11			
Empathy ability	0.08	0.04	0.07	1.88	.062	1.17			
Major satisfaction	0.46	0.04	0.43	10.40	<.001	1.45			
Grit	0.32	0.04	0.32	8.15	<.001	1.29			

[†]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age($\leq 21=0$), religion(Yes=0), grade(First=0), personality type(Extroverted=0), experience participation i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Yes=0), adjustment to the department(Good=0)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도는 3.51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eong과 Lee[22]의 연구에서는 3.5점, Lee와 Cho[23]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본 연구의 거의 차이가 없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n과 Chung의 연구[24]에서는 공감역량이 3.61점으로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보다 간호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선행연구[24]에 따르면 공감역량은 임상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공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 비교과 공감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4.08점(5점 만점)으로 Jung와 Jung[25]의 연구에서는 2.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Jung와 Jung[25]의 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Jung와 Jung[25]은 중간고사 기간에 5일 동안 시행하였고, 본 연구는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하계방학 후 개강 직전에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학사일정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학 시기부터 졸업까지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그릿은 3.10점(5점)으로 Jung와 Jeong[25]은 3.18점, Park과 Ahn[26] 3.20점, Yu[27] 3.2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릿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27]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가 20대 미만보다 그릿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낮은 나이에 입학하여 하고자 하는 끈기와 의지가 강해 그릿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릿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인데,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 차 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Ahn[26]의 연구에서 그릿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동일한 목표의 지속성이 대학생활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신입생의 처음 노력과 투자를 성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안 마련과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3.62점(5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17]의 연구 3.37점, Seo와 Oh[1] 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적응과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4, 5, 11, 24]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그릿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Lee와 Park[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그릿은 순간적인 인내가 필요한 자기통제와는 다르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릿 수준 향상을 위한 입학과 졸업까지 대학 생활 전 과정에서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입학 시 그릿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중도 탈락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그릿, 성격유형 그리고 학과 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68.0%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

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는 학과 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Ha[10]은 전공만족이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대한 학습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Jung과 Jeong[11]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간호 전문직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 즉 교수학습방법, 학생 편의시설, 비교과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과 대학생활동안 그릿을 강화시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성격유형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전공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 Yu[2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향적 성격에 비해 내향적 성격이 대학생활적응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성격 진단, 외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방안 모색과 내향적 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적응 집중 모니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격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회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 입학 시점에 입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성격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진로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공만족도와 그릿, 성격유형, 학과 적응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그릿을 향상시키고 외향적 성격 강화와 학과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전공만족도, 그릿,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릿과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그릿, 내향적 성격, 학과적응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68.2%였다. 학생들이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학 시점에 그릿 정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만족도 향상과 그릿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인 경우 취업이 보장되어 리턴 입학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해 졸업 후 간호 전문인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리턴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와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eo MJ, Oh IJ.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4):815-824.
<https://doi.org/10.5392/JKCA.2627.27.04.815>
2. Park SM, Kim CG, Cha SK.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

- nes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nursing student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300-311.
3. Oh MJ, Kim BW. The impa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eaning of lif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1;29(3):180-203.
<https://doi.org/10.28924/jhss.29.3.262712.008>
4. Kim MY, Kang EH, Park HJ.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10):283-294.
<https://doi.org/10.14400/JDC.2626.18.8.331>
5. Oh YH, Park MS.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8):331-341.
<https://doi.org/10.14400/JDC.2626.18.8.331>
6. Roger D, Hudson C.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995;2:119-132.
7. Bae MJ, Jo HI.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 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4;15(6):2417-2435.
<https://doi.org/10.15703/kjc.15.6.261412.2417>
8. Shin ES. The effects of positive reinforcement personality program on care, defense mechanism,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21):175-189.
9.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10. Lee, KE, Seo, IS.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2;28(1):37-47.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11.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414-23.
<https://doi.org/10.5392/JKCA.2618.18.06.414>
12. Kim HD, Lee SH.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grit,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22;34(4), 633-647.
<https://doi.org/10.13000/JFMSE.2628.8.34.4.633>
13.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https://doi.org/10.1037/0028-3514.92.6.1087>
14.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10:85-103.
15. Kang I, Kee S, Kim SE, Jeong B, Hwang JH, Song JE, et 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9;2(27):186-196
16. Kim EY, Sung SY. Stud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19):535-554.
17. Lee SJ, Park JY.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69-276.
<https://doi.org/10.14400/JDC.2618.16.2.269>
18. Chin EY, Jung CH.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Health & Welfare*. 2020;22(1):151-76.
<http://doi.org/10.18014/hsmr.2619.13.4.0>
19.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p.1-87.
 20. Lee SR.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p.1-152.
 21. Park S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Seoul: Dankook University 2017. p. 1-126.
 22. Jeong H, Lee KL.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9(9): 6044-52.
<https://doi.org/10.5762/KAIS.2615.16.9.6044>
 23. Lee JS, Cho HY.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27(2):186-196.
<https://doi.org/10.5762/KAIS.2615.16.9.6044>
 24. Seon YM, Chung KH. Effect of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on personal relations,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9):489-500.
<http://doi.org/10.35873/ajmahs.2619.9.9.042>
 25. Ju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6):414-23.
 26. Park IS, Ahn SS.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Grit of New Students of Nursing Colleg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19;13(4):1-12.
 27. Yu MO. Effects of grit and personality typ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3;24(5):364-72.
<https://doi.org/10.5762/KAIS.2623.24.5.364>